

세드나®(Sedna®)골드 소재의 블루 바티스카프

다이빙 장비와 민간용 타임피스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(Fifty Fathoms Bathyscaphe) 모델을 이제 세드나® 골드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 & 베젤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.

피프티 패덤즈의 역사는 블랑팡이 최초의 전문 다이버 워치를 공개한 1953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. 몇 년 뒤 블랑팡은 이 시간 측정 장비에 바티스카프 모델을 추가하며 일상생활에 더욱 잘 어울리는 사이즈의 다이버 워치를 선보였다.

피프티 패덤즈의 60 주년을 기념해 2013 년 현대적인 버전으로 다시 등장한 바티스카프는 이후 컴플리케이션을 추가하거나 소재를 달리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라인업이 더욱 풍성해졌다. 처음으로 세드나(Sedna®) 골드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과 베젤을 조합한 새로운 블랑팡 바티스카프는 전문 다이버를 비롯해 수상 스포츠 애호가, 아름다운 시계 애호가에게 우아한 선택지가 되어줄 것이다.

블루는 해양 세계를 향한 블랑팡의 열정과 열의를 상징한다. 이 깊은 컬러가 반사를 극대화하며 선버스트 피니싱한 다이얼 덕분에 빛과 매력적인 조화를 이룬다. 직사각 형태의 아워 마커와 골드 & 슈퍼-루미노바® 도트로 이뤄진 챗터링이 다이얼에 섬세한 느낌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가독성을 제공한다. 슬림한 초침과 날짜창을 갖추고 있으며, 시침과 초침 역시 직사각 형태에 슈퍼-루미노바® 코팅해 1950 년대 바티스카프 시계를 연상시킨다.

레드 골드의 탁월한 견고함을 지닌 골드, 구리, 팔라듐 합금인 세드나® 골드 소재의 43mm 사이즈 케이스는 날렵한 실루엣에 새틴 피니싱 처리로 바티스카프에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불어넣는다. 세드나® 골드의 단방향 로테이팅 베젤은 세라골드® (Ceragold®)소재 눈금과 아워마커를 비롯해 세라믹 인서트를 갖추고 있다.

300m 방수 가능한 새로운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안에서는 1315 칼리버가 박동하고 있다. 정확성과 성능을 향한 오랜 열정에서 탄생한 이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는 특별히 바티스카프를 위해 블랑팡이 개발, 제작한 것이다. 세 개의 짝을 이룬 배럴이 균일한 동력, 그리고 5 일 파워리저브를 제공한다. 균등한 진동 간격을 보장하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은 자성의

영향에서도 자유롭다.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블랑팡 로고를 인그레이빙하고 샌드블라스트, 새틴 피니싱한 스네일 패턴의 세드나® 골드 로터와 스네일 & 베벨링 처리한 브리지 등 무브먼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.